

임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복지차량 운영

임실군이 지역내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을 본격 운영한다.

7일 군은 관촌권역과 강진권역 7개 면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복지차량 운영은 복지허브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임실군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과 함께 국비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2018년까지 읍면 복지허브화를 추진 중이다.

임실군은 관촌, 강진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임실에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을 신설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복지가능 강화를 적극 나서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날 군은 먼저 7개면에 먼저 복지차량을 전달하고, 하반기에는 2개 읍·면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이날 전달식에서 7개면 관계자들에게 "우리지역에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곳곳에 찾아가 행복을 만드는 복지차량이 되기를 바란다"며 "변화되는 전달체제 개편에 맞춰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 개막 초읽기”

심민 임실군수, 민선 6기 3주년 기자간담회 남은 임기 1년 '백년지계 플랜' 추진 강조

심민 임실군수가 민선 6기 남은 1년을 미래임실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고,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심 군수는 지난 7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을 4천억 예산시대의 건실한 토대를 다지고, 3만 인구달성 등 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남은 기간 미진한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임실을 주도할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 등의 백년지계 플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심 군수는 "취임한 지 몇고래 같은데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다"며 "앞으로 일년간 민선 6기를 안정되게 잘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섬진강편 순환도로 개설 등과 같은 숙원사업과 미래주도형 사업들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군수는 이날 민선 6기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 먼저 3년 연속 3500억원이 넘는 낙낙한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관공·복지 등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의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3만 인구의 "돌아오는 임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그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치즈산업의 경쟁력 강화, 옥정

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옥정호 예곡관광특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효삼행정 등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생활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임실N치즈산업 육성 등의 6차산업화를 통한 희망 농업 중장기 발전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일진제강과의 2천억원 대규모 투자를 통해 500명의 인구유입과 35사단 이전과 관련 280세대 군안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 등 이진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펼쳐보였다.

심 군수는 "3년전 임실부군수와 군수권한대행을 했던 경험과 37년간의 공직생활, 10년간의 아인생활 등을 통해 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며 "어려운 일이나 필요한 부분은 행정처원에서 최대한 해결하려 노력했고, 선거때 약속했던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60개 공약사업 중 25개가 완료되는 등 현재 정상 추진율은 95%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심 군수는 앞으로 남은 1년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실군 백년지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피력했다.

그 중심에는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가 있다. 심 군수는 현재 추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7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년지계 플랜을 설명하고 있다.

진 중인 섬진강에코뮤지엄사업(280억원)과 옥정호 물문화 들레길(50억원) 등 옥정호 관공특구 개발과 더불어 숙원사업인 섬진강편 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심 군수는 또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의 1만5천평 부지에 총 70억원을 들여 장미꽃동산을 조성, 봄에는 장미꽃과 가을에는 국화꽃이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해 축제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오수외견 실화를 살려 오수에 애견훈련장과 체험센터 등이 있는 반려동물 테마공원(200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오수에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성수산도 왕의 숲 조성사업과 태조희망

의 숲, 왕의 물길을 비롯해 산림바이오패트와 옥정호 물문화 들레길(50억원) 등 옥정호 관공특구 개발과 더불어 숙원사업인 섬진강편 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심 군수는 또 내년 2월초 개원예정인 봉황인재학당도 지역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심 군수는 "지난 3년간 군민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지 덕분에 많은 일들을 큰 어려움없이 잘 이뤘고 올 수 있었다"며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섬진강 르네상스와 같은 임실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피서철 쓰레기 종합관리 대책

남원, 뱀사골 계곡 등 집중 관리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쓰레기 적기 수거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들고자 피서철 쓰레기 종합관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을 정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내 뱀사골 계곡과 자연발생 유원지 등 27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관리 지역에 대해 시와 읍면동, 모니터링 등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하여 쓰레기 적확장, 재활용분리수거함, 음식물 수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제도 활동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수기에 뱀사골 계곡 등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쓰레기 수거 전담반을 배치하여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등도 집중 점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 밖에 쓰레기처리 상황판, 기동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과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 운영하여 쓰레기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에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피서지 조성을 위해 쓰레기 인버리기,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다시 가져오기,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하기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피서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내일로 홍보단 발대

남원시는 지난 7일 '여름휴가 남원에서 보내기'와 문화관광지원 홍보를 위해 전국 2만9천세 이하의 젊은이들 40명을 대상으로 '내일로(Road-to)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남원시와 코레일 남원관리역(역장 김홍식) 공동추진으로 남원의 관광자원 소개, 홍보단의 역할 등 미션수행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홍보단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기차를 타고 5일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여름휴가 남원에서 보내기'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연계한 '전북투어패스 남원여행'을 홍보하고 활동 후 UCC 제작, SNS 게재, 홍보후기 작성 등 여러 가지의 미션을 수행하며 남원시의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장근 관광과장은 젊은 층의 주타일이 되는 대학생들이 내일로 홍보단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여름휴가를 앞두고 전국에 남원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발효종균 보급·제품화 '박차' | 순창군 2억원 투입·12월 완료

발효미생물 산업메카 '발돋움'

순창군이 '발효 종균 보급 및 제품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혀 관련 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발효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통발효식품 유래 발효미생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화가 가능한 국내 토착 유용균주(발효미생물)를 기업수요에 맞게 제공하여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로 단기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과가 탁월할 경우 '18년에는 사업비가 증액된다.

군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한 '발효 종균 보급 및 제품화

사업' 공모사업에 (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순창군의 전통장류에서 분리한 국내 토종미생물의 산업화를 위해 미생물 발굴부터 산업화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생물을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순창전통발효문화산업지구 조성사업 완료되고, 2027년까지 장내유용미생물 산업 육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순창군은 국내를 대표하는 발효미생물 산업 메카로 순창군이 자리매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장류사업소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그동안 한국

형 유용균주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 수행을 통해 메주, 누룩 등과 같은 전통발효식품 재료로부터 다양한 미생물을 발굴 및 자원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미생물을 선별하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순창군을 세계 발효미생물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자신감을 통해 향후 미생물 산업화 보급사업인 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사업과 2027년까지 장내미생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에 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도시숲 조성사업 완료

임실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숲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군은 총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도리, 갈마나들목, 대곡리 유흥공원 3개소에 2.0ha의 도시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실읍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부족한 녹지 확충과 경관은 크게 개선됐다.

군은 도시숲 조성 지역에 녹음이 풍부하고 계절별 꽃이 피는 소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철쭉 등의 수목 7,273주와 무늬비비추, 사계패랭이, 별개미취 등의 초화



류 16,776본을 식재했다. 도시숲은 집 앞 정원의 나무 한 그루에서부터 생태공원과 같은 대규모의 도시공원에 이르기까지 도시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Advertisement for 'Imseol Cheese' (임실치즈). The ad features the brand logo at the top left, a large image of various cheese products in the foreground, and a background image of a large, modern building with a dome. Text in the ad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The Capital of Korean Cheese) and '임실치즈' (Imseol Cheese). At the bottom, there is a short paragraph in Korean describing the cheese's quality and origin.